

박완서 소설의 죽음정치적 특성과 그 의미

— 『아주 오래된 농담』을 중심으로*

권 영 빈**

요약

이 글의 목적은 박완서의 후기작 『아주 오래된 농담』(2000)을 통해 죽음의 할당과 관리가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것을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경험적 산물로 파악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박완서가 여성 작가로서 소설을 통해 천착해온 젠더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이러한 죽음-삶의 신체적 동기화와 주체 구성 간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정치적 특성을 살피고, 그의 소설을 한국문학에서 주체화 및 신체 사유의 내러티브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제고하고자 한다.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죽음정치는 산 자의 몸이 ‘시체가 되는 것을 추동함으로써 그 밖의 것을 죽음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일종의 제의이자 향연이다. 송회장 일가가 보이는 죽음정치는 죽음의 할당과 관리가 삶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것이자, ‘욕된 죽음’을 규정하고 그것을 남은 자들이 ‘삼키는’ 제의를 통해 죽음-삶 연속체로서 살아가는 한국(인)적인 삶의 역사적 맥락에 접근한다. 한편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을 수태와 낙태의 몸으로 관계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거부장제하 죽음을 주체화의 문제로 다루고 심화하는 것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시체가 ‘자본’이 되는 메커니즘의 기원인 한국전쟁이라는 작가 원체험을 되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침단을 가시화하는 존재로서의 여성, 가족의 역사적 삶을 다시금 밝히려는 소설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1161)

** 동아대학교 젠더·어팩트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제어: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 죽음정치, 젠더, 몸, 낙태

목차

1. 들어가며: 박완서 문학의 죽음 인식과 정치성
2. 시체를 생산하는 죽음정치
3. 제의-향연의 죽음 관리 체계
4.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여성의 몸과 ‘농담’의 구조
5. 나가며: ‘살아있음’이라는 당위에 대한 문제제기

1. 들어가며: 박완서 문학의 죽음 인식과 정치성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감염병이 범유행하는 상황 속에서 죽음은 인류의 일상에 한껏 가까워졌다. 통제와 격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고, 접촉을 유발하는 행동 양상들은 (비)자발적으로 축소되고 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상한 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와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는 한국사회의 ‘살아있는 죽음’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다시금 가시화시켰다. 팬데믹이 불러온 가장 직접적인 효과이자 결과는 전지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러한 생명-죽음 관리체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 시스템의 일상화, 신체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이 분리 불가능한 형태로 결합되어 개인 및 공동체의 존재 양상과 이들 사이의 관계성을 재구성하는 질서는, 비단 감염병 유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식민지화와 전쟁 경험 위에서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를 거쳐 오늘날 더욱 심화된 자본주의이데올로기 속에 놓이게 된 한국에서, 삶 또는 생존의 문제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죽음을 할당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오랜 사회적 체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반공이데올로기와 가파른 경제 성장이 상호 강화되는 속에서 ‘죽음’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되지 않는 존재에게

주어지는 것이었고 이들은 수치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배타적 생존공동체로서의 혈연가족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죽음이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한국(인)이라는 사회적 신체를 ‘죽음’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삶’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의 목적은 박완서의 후기작 『아주 오래된 농담』(2000)을 통해 죽음을 대하고 처리하는 방식이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을 지배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것을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경험적 산물로 파악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특히 박완서가 여성 작가로서 소설을 통해 전착해온 젠더이데올로기의 문제는 이러한 죽음-삶의 신체적 동기화와 주체 구성 간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을 토대로 박완서 소설에 나타나는 죽음정치의 특성을 살피고, 그의 소설을 한국 문학에서 주체화 및 신체 사유의 내러티브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제고하고자 한다.

박완서의 소설, 글쓰기가 한국전쟁기 비국민으로 겪은 학살의 경험과 육친의 죽음을 해석하려는 끝없는 충동이었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서울에서의 전쟁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자전적 소설뿐만 아니라, 등단작 『나목』(1970)에서 시작해 『한발기』(1972),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틀니」(1972), 「부처님 근처」(1973), 「겨울 나들이」(1975), 「돌아온 땅」(1977), 「엄마의 말뚝 2」(1981), 「엄마의 말뚝 3」(1991), 「나의 가장 나중 지니인 것」(1993)을 거쳐, 유작으로 볼 수 있는 「빨갱이 바이러스」(2009)에 이르기까지, ‘반동으로서의 죽음’ 문제는 그가 소설가로 살았던 사십여 년 동안 중단된 적 없는 주제이다.¹⁾ 이러한 ‘육된 죽음’은 애도하거나 발화할 수

1) 박완서 소설의 죽음 인식을 논하는 연구들 또한 대체로 작가의 한국전쟁 경험과 관련된 자전성이 강한 소설들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과 트라우마, 애도의 문제와 함께, 노년 주체가 직면하는 자아 성숙의 죽음 인식 또한 다뤄진 바 있다.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김미영, 「박완서 소설의 애도 불가능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98, 한국언어문학회, 2016; 박성은, 「박완서 소설 속 ‘망령들’을 통해 본 분단서사의 틈과 균열」, 『용봉인문논총』 53, 전남대학교

없는 죽음,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일상적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죽음이다. 특히 그의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죽음을 삼킨’ 신체의 형상은 단지 인물이 가진 고통스러운 기억을 현재화, 현장화하는 장치에 그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살아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뒤흔들고 해체하는 요소로 등장한다. 이러한 죽음-삶이 신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는 양상과, 그것이 주체 구성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역학을 다루는 것이 박완서 소설의 죽음에 대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이러한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신체와 주체성의 전조를 담지하는 인물은 주로 여성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죽음이라는 터부에 강력하게 붙들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보다 이들이 젠더화된 ‘몸’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표시하기 때문이다. 박완서의 소설에서 죽음이라는 체증을 몸으로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과, 전쟁이 자본주의적 가부장 체제로 그 모습만 바꾼 채 일상을 지배하는 현실에서 그것을 체현한 여성들은 죽음과 삶이 상호 의존해 작동하는 역설을 감각하는 존재들이다. 이상의 주제를 대표하고 집약하고 있는 것이 장편 『

인문학연구소, 2018;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김원일, 최일남,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그러나 김혜경의 지적대로, 박완서의 많은 소설이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박완서식 죽음 양상’을 별도로 분석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에 논자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 자식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등을 재현한 소설을 분석함으로써 박완서의 죽음 인식이 공포와 은폐에서 치유와 순용으로 나아가는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김혜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9-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이러한 접근은 전쟁 체험과 관련된 작가 정체성이나 글쓰기 형식과 관련해서 한정적으로 의미화되거나 개별 작품론 차원에서 다루지곤 했던 박완서의 죽음 인식을 통합적으로 살핀 의의가 있지만, 박완서의 소설세계를 관통하고 지배하고 있는 죽음에 대한 사유를 궁구하려는 본 작업과는 차이가 있다. 본문에서 후술하겠지만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전쟁과 자본주의이데올로기가 연속되는 속에서 전쟁 없이도 계속해서 생산되는 ‘반동으로서의 죽음’과 젠더화된 주체 문제이다. ‘죽음정치’는 죽음을 할당, 관리하는 체계이자 이러한 죽음정치하의 존재들을 살필 수 있게 하는 관점으로, 박완서 소설의 죽음 인식은 ‘죽음’이 ‘삶’을 구조화하며 이를 체현한 신체 양상을 보여준다는 데에서 그 핵심을 찾을 수 있다.

아주 오래된 농담』이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한국전쟁이라는 작가 원체험을 노년 여성의 인식 기반에서 다시금 돌우는 박완서의 후기 저작들 속에서 다소 두드러진다. 표면적으로는 1990년대 이전 시기의 장편작들과 연결되는 측면도 있다. 박완서가 이른바 ‘대중’ 작가로서 1970, 80년대 신문이나 문예지 연재를 통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영합하는 양상과 여성, 가족의 현실을 특유의 섬세한 필치와 흥미로운 장광설로 독자들에게 밀어붙였던 점을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된 농담』 또한 그 내용과 형식을 잇는 서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인지 소설에 대한 분석도 가부장제, 자본주의 극복이나 가족이테올로기에 대항하는 동력에 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²⁾ 그런데 이 소설이 ‘죽음’을 강력하게 무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면 박완서의 문학적 뿌리인 전쟁과 상실의 경험에 또 다른 방식으로 근접하고 있는 소설로서 이를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신체 사유에 대한 것이자, 그것이 체현된 여성의 존재론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소설세계를 새롭게 아우르는 말년의 양식(late style)³⁾으로서의 위치를 보증한다는 차원에서도

2) 이는 『아주 오래된 농담』의 특징적 결말-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여성을 구출해주는 또 다른 가부장이자 자본가인 ‘영준’이라는 인물의 설정이 작품 해석의 방향을 일정 정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자본의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억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세대/주체의 출현이라고 분석한 경우(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인물들이 보이는 돈 혹은 자본주의에 대한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태도에 미루어 이 소설은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 아닌 그러한 저항의 환상을 제거하려는 의식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신자유주의의 후폭풍을 경험한 2000년대 작가의식의 반영이라고 해석한 경우가 있다.(김미현, 「번역 그리고 반역」,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박완서소설전집21), 세계사, 2018.) 최근의 연구는 『아주 오래된 농담』에 나타난 테크놀로지의 동원 방식이 가족의 근접성과 친밀성의 관계를 재조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것이 가족이테올로기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양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논하고 있다.(유인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근접성 없는 공동체와 친밀성의 테크놀로지: 『아주 오래된 농담』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80, 민족어문학회, 2020.)

3) 박완서 후기작에 대한 연구 방법론으로 말년성(lateness)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에드워드 사

그러하다.

이 글은 『아주 오래된 농담』을 한국전쟁과 육친의 죽음을 해석하기 위해 중생토록 고심했던 작가의식의 가장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변주로 본다. 아울러 이러한 전쟁과 관련된 죽음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여성의 몸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오래된 농담』은 죽음을 다루는 작가의 다른 저작들과 크게 변별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정치적 특성과 더불어, ‘죽음’ 주변을 선회하면서 ‘삶’의 반경과 주체화를 타진하는 존재로서의 여성 인물들을 분석하고, 이 소설이 박완서의 죽음 의식을 그 자신의 소설사적 맥락에서 또한 갱신하고 있다는 점을 논구하고자 한다.

2. 시체를 생산하는 죽음정치

죽음이라는 절대적 진리는 예로부터 형이상학적 사유와 역사적 해석의 대상이 되어왔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죽음은 정신의 감옥인 육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는 사건이거나 ‘삶’이라는 숙제를 완속하게 하는 것으로, 철저한 이성적 인식의 대상으로 접근되었다. 죽음을 둘러싼 이러한 정신(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적 분할은 근대철학에 전승되는 동시에 세계대전을 거치며 분화되었다. 이를테면 실존철학은 죽음을 ‘살 권리’

이드가 개념화한 ‘말년의 양식’은 예술가의 후기작에 기대되는 조화, 포용의 미감이 아닌, 비타협과 모순, 해결될 수 없는 난국 등이 어떻게 그들의 예술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비평의 관점이다.(이혜령, 「박완서의 1980년대: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결합」,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우현주, 「상생과 불협화음의 경계에 선 말년성(lateness): 박완서의 「빨갱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참조.) 『아주 오래된 농담』은 박완서의 소설세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제들을 변형시키면서 매우 파괴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인 「그 남자네 집」(2004)과는 또 다른 의미의 최종 작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나아갔고, 죽음(death)이 아닌 죽어감(dying)에 대한 인식은 죽음이 주체의 권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확인시켰다.⁴⁾

이러한 죽음의 의미는 박완서의 많은 소설에서 돋보이는 주제이다. 그는 학살 생존자의 몸이 애도 불가능성 앞에서 죽음으로 되먹임되는 삶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을 일찍이 포착하였다. 특히 그가 자신의 글쓰기를 ‘토약질’이라 이른 것은 그의 소설이 냉전 질서가 존속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죽음 의례, 즉 기념, 기억의 정치와 투쟁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지하다시피 아감벤의 죽여도 기념되지 못하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는 인간됨, 비/국민의 경계를 구획하는 통치성이 신체화된 형상이다. 박완서의 이른바 ‘벌레의 시간’은 단순히 존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사 전장(戰場)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닌, 피아(彼我) 식별이 불가능한 공포가 공동체 내부에 기입된 상황과 더불어, 누군가에게 죽음을 할당함으로써 그러한 식별 불가능성의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적 질서를 몸으로 감각했던 것에 대한 표현이다.⁵⁾ 여기서 죽음은 공동체 내부에서 할당, (재)생산되는 것이자, 그러한 ‘나쁜 죽음’의 대상과 속성을 규정하는 행위가 주권권력과 법적 주체의 문제를 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주 오래된 농담』의 서사도 ‘나쁜 죽음’의 대상과 속성을 규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주 오래된 농담』⁶⁾은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재벌 ‘송

4) 김분선,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철학탐구』 5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0 참조.

5) 차미령은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을 대상으로 이러한 비식별역과 예외상태, 주권권력의 문제를 슈미트, 아감벤, 버틀러 등의 논의를 통해 명료하게 분석한 바 있다. (차미령, 『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6) 『아주 오래된 농담』은 1999년 11월 『실천문학』에서 연재되기 시작해 이듬해 가을 완결되어 실천문학사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박완서소설전집결정판을 출간한 세계사 판본(2018)을 분석의 저본으로 삼는다.

회장' 일가가 혈육의 죽음마저 영육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와 그 전체가 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그리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을 그린다. 소설의 중심인물인 의사 '심영빈'은 매제 '송경호'의 암 진단 사실, 그리고 그가 처한 시한부의 삶을 당사자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는 송회장의 압력을 받고, 영빈의 동생이자 경호의 아내인 '영묘' 또한 시가의 가풍에 따라 주술과 대체의학에 의지해 남편을 보살피게 된다. 그러나 내로라하는 재벌가의 주인인 송회장은 만아들이자 후계자인 경호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호가 '나쁜 죽음'의 자리를 가족으로부터 할당받고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여러 국면이 등장한다.

“그 앤 마음이 어려워. 어려서도 계집애같이 굴어서 애비를 얼마나 실망시켰다구요. 지레 삶을 포기해버릴지도 몰라요. 내가 항암제는 왜 절대 안 된다는지 아십니까. 항암제 맞으면서 암이라는 걸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애한테는 절대루, 절대루,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그러겠지만 박사님도 에미한테 단단히 일러놓으세요. 입조심하라구.”⁷⁾

“그 애는 착해빠진 대신 의지가 박약한 애다. 모질지 못해서 단념도 잘 하지. 암이라는 걸 알면 비관해서 지레 죽고 말 거다. 이제 병원 맡은 그 만 듣자. 병원은 검사만 정확하게 해줬으면 할 일 다한 거다.”⁸⁾

송회장은 경호를 진단한 영빈과 며느리 영묘에게 경호가 자신의 몸 상태를 알지 못하게 하자며 신신당부한다. 이렇듯 죽음을 앞둔 경호가 신체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아버지 송회장으로부터 규정되는 '나약함' 때문이다. 환자를 소외시킨 채 가족이 치료의 전권을 갖게 되는 요인은 표면적으로는 경호의 나약한 성품이 불러올 부정적

7)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박완서소설전집21), 세계사, 2018, 140면.

8) 위의 책, 156면.

결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소설은 “돈과 혈통의 동일시”⁹⁾라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에서 경호의 나약함이 갖는 의미를 복합적인 차원으로 그려낸다.

송회장 일가에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결핵체질’은 “송씨 집안의 피할 수 없는 운명”(112)이자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암을 선고받고 나쁜 체질을 드러낸 경호의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돈’과 ‘피’의 세계에서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 송회장 일가가 구축한 Y건업의 장자(長子)인 경호는 가족(자본)을 제대로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핵체질’이라는 나쁜 피와 가족의 수치를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호에게 시한부의 삶이 선고된 순간부터 그는 (나쁜) 죽음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이로부터 소설은 산 자의 몸이 ‘시체’가 되는 것을 추동하고 그것을 관리하려는 ‘죽음정치’의 일면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생명이 있는 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불변의 진리, 죽음이 삶을 조건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은 오늘날 생명-죽음 관리체계로서의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그것이 전지구적으로 작동되는 속을 살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진단하는 ‘생명정치’와 ‘죽음정치’는 대쌍관계로 상호 분리되지 않는다. 잘 알려져 있듯이 생명정치(biopolitics)는 조절과 통제의 테크놀로지를 통한 자기돌봄을 생성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죽음’을 지배하는 억압적 권력이 ‘삶’을 지배하는 권력에 종속되게 되는 역사적 단절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푸코(Foucault)는 이러한 생명권력의 경제에서 죽음 기능을 담보했던 것으로 근대 인종주의를 꼽았지만,¹⁰⁾ 에스포지토(Esposito)는 ‘죽음’의 할당과 관리가 생명정치 내부에서의 단절이자 전환점이었음을 설명했다.¹¹⁾ 한편 음베베(Mbembé)는 생명이 죽음에 강력히

9) 위의 책, 247면. 이하 본문 내 인용은 괄호 안 면 수로 표시함.

10) 토마스 램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5, 67-73면.

11) 이러한 단절은 나치즘의 통치 원리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에스포지토는 나치즘을 ‘죽음의 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이올베반의 최고점이라 설명하면서,

복종되는 동시대의 현상을 설명하기에 ‘생명정치’라는 말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정치를 죽음정치(necropolitics)로 대체 명명한다.¹²⁾ 전쟁과 테러, 격리와 학살이 새로운 기술-통치 담론을 통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오늘날, 생명-죽음 관리체계는 살아있는 시체(living dead)를 생산하고 그 범주를 넓히는 것으로서 삶-죽음 연동 체제를 확인시킨다.

이와 관련해 박완서 소설에서 또한 죽음정치는 ‘나쁜 죽음’의 대상과 속성을 규정하고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는다. 특히 죽음이 공동체 내부에서 할당되고 슈아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죽음은 남은 자들의 삶을 위한 것으로서의 의미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소설에서 경호의 몸이 단순히 죽음 또는 시체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통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제물’로 자리매김되는 이유이다.

경호의 암 진단 사실은 ‘결핵체질’이라는 나쁜 피를 가시화하여 남은 자들의 삶을 위협하게 되고, 이들은 서둘러 그의 몸을 병원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수거해 주술로 점철된 폐쇄적 공간인 집으로 들이게 된다. 병원은 그의 시한부 삶을 확정하는 검사를 위해 필요했을 뿐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육된 죽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가이다. 송희장 일가는 집에 돌아온 경호의 치료를 위해 양방을 동원하지만 그의 몸은 점차 시체의 형상으로 변모해가면서 영묘와 함께 나날이 황폐해져간다.

나치들은 유대인들의 신체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보고, 그들은 ‘이미’ ‘죽은 삶’을 ‘죽음’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죽음에 사로잡히고 죽음에 의해 망가진 삶에 죽음을 줌으로써 삶의 권리를 재수립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죽음을 하나의 대상이자 동시에 생명을 위한 치료 도구로 간주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늘 자신들의 죽은 조상을 숭배했는데, 왜냐하면 완전히 ‘죽음정치로 전도된’ 생명정치적 관점에서는, 삶의 모든 것을 죽음의 체제에 굴복시킴으로써, 삶을 삶 그 자체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오직 죽음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로베르트 에스포지토, 김상운 역, 「생명정치와 철학」,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302-303면.)

12) A. Mbembé & Libby Meintjes,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vol.15, Duke University Press, 2003, pp.39-40.

땀을 땀을 해야 할 곳은 온몸에 분포돼 있다고 했다. 푸석푸석한 얼굴과는 달리 경호의 몸은 삭정이처럼 마르고 핏기가 없었다. 경호에게 최소한의 수치심도 허용되지 않았다. … 환자는 마치 널에 누운 시신처럼 딱딱한 바닥에 반듯하게 누워졌다. 바싹 마른 몸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경호가 괴롭게 몸을 뒤틀었다. 곧 경호의 몸이 활활 타오를 것 같아 영묘는 비명을 삼키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 화장장에서 시체를 태우는 걸 목격했는데, 장작불이 시체로 옮겨붙기 전에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몸을 뒤틀더라고 했다. … 그 얘기는 생각났다기보다는 생생한 악몽이 되어 그녀를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¹³⁾

숨결을 확인하기도 전에 경호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붉게 핏발 선 눈을 부라렸다. 생기 없이 번들대는 눈이 의안처럼 기본 나빠 영묘는 눈길을 피했다.

“왜?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어서 실망했나? 이 화냥년아. 어디 붙어먹을 놈이 없어 그 땡중하고 붙어먹냐. 저리 비켜, 이 더러운 년아.” … 다음날도 그는 도사를 배웅하고 들어온 영묘를 보고는 발작처럼 땡중하고 몇 번이나 붙어먹었냐고 고래고래 악을 썼다.¹⁴⁾

경호가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과정은 그가 인간성의 지표인 수치심이나 언어를 상실해가는 것에서 드러난다. 특히 ‘최도사’를 통한 치료의 과정에서 쏟아지는 주술적인 말들은 그가 망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는 형국을 잘 보여준다. 위 인용에서 집은 화장장, 제의 공간으로 환원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죽음정치가 ‘죽음’을 규정하고 할당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 처리하는 작업을 포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경호의 퇴원은 축제처럼 번잡스러웠다. … 병원까지 와서 설치던 회사

13) 『아주 오래된 농담』, 191-192면.

14) 위의 책, 208-210면.

사람들은 병자보다 앞질러 아파트 입구에 도열해서 마치 해외에서 굉장한 수수를 따내고 귀국하는 그룹 회장을 공항에서 출영나온 중역진 같은 표정으로 경호를 맞았다. 경호는 영묘의 부축을 뿌리치고 그 사이를 어색하게 걸어 들어갔다. 화려하고도 이상한 퇴원이었다.¹⁵⁾

송회장은 표면적으로는 대체의학에 의지해 아들을 치료하고자 그를 퇴원시킨 것이지만, 전후의 내용은 송회장 일가가 경호가 죽을 것을 예견하고 치료가 아닌 특정한 죽음의 방식을 준비하기 위해 그를 집에 불러들인 것으로 묘사된다. 송회장은 경호 부부의 전셋집 계약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뜬 치료사에게 차비를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경호의 치료에 경제논리로 접근하는데, 이는 그의 죽음을 산 자들을 위해 준비되고 치러져야 할 ‘이벤트’로 간주하기 때문이다.¹⁶⁾ 인용에서 경호의 퇴원 장면이 호들갑스럽게 묘사되는 것 또한 상류층의 허위의식이나 물질주의적 세태를 보여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토템과 터부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처럼 죽음의 대상과 속성을 규정하고 그것을 관리, 처리하는 과정으로서의 죽음정치는 ‘살아있는 시체’를 생산하는 것에서 시작해, 그러한 죽음이 남은 자들의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리매김되는 단계로 이행한다. Y건업이라는 가족(자본)의 ‘삶’을 위협하는 경호의 몸이 ‘죽음’의 자리를 할당받는 것에서 나아가, 그러한 죽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의미화하려는 이 예견된 기획은 그의 실제 죽음과 관련된 장면들에서 구체화된다.

15) 위의 책, 173-174면.

16) 오직 경호의 할머니만이 그가 진짜 죽을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채 최도사에 의지해 그를 살리고자 노력한다. Y건업 창업주의 아내인 할머니는 남편을 도와 재산을 불러 집안을 재벌의 반열에 올린 인물이며 가내 최고 권력자로 그려지는데, 송회장은 그녀가 주도하는 치료 비책에 짐짓 따르면서도 거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채 오직 ‘죽음’이라는 사건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몰두한다.

3. 제의-향연의 죽음 관리 체계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경호의 몸이 살아있으면서도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제물과도 같이 그려지는 것은, 죽음정치가 죽음의 할당과 관리를 통해 삶을 구조화하는 자본주의적 통치술에 대한 것이면서, 그러한 ‘육된 죽음’을 남은 자들의 삶을 위한 것으로 치환하기 위한 의식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여기서 박완서는 죽음을 ‘삼키는’ 제의-향연의 행위를 통해, 죽음-삶 연속체로서 살아가는 한국(인)적인 삶의 역사적 맥락에 접근하게 된다.

갈색빛이 나는 거룩한 액체 위에 떠 있는 게 흰 비늘 같다 싶으면서 구역질이 나려고 했다. ... 경호는 그렇게 세 순갈을 연거푸 받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곧 가슴을 움켜쥐더니 토할 것 같은 기미를 보였다. ... 토사물은 한약이 아니라 피였다. 엄청난 양의 각혈이 갑사 치마를 검붉게 물들이면서 통과해 경호의 옥색 바지까지 피범범으로 만들었다. 피를 보고 놀란 경호가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이상한 신음 소리를 길게 끌며 쓰러졌다.¹⁷⁾

경호의 죽음은 송희장 일가가 꾸린 ‘잔치판’에서 벌어진다. 경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 부부 아들의 돌잔치는 필요 이상으로 성대하게 꾸려지는데, 죽기 전부터 이미 시체로 규정된 경호의 몸은 Y건업이라는 가족(자본)의 ‘삶’을 위한 제물로, 아기의 삶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사람 소리 같지 않은’ 신음을 끝으로 실질적 죽음을 맞는다. 백항아리에 든 영약을 먹다 피를 토하며 고꾸라진 경호 옆에는 “철부지 아이들만 희희낙락 넘어지고 자빠지고 옷을 더럽히며 하던 장난을 멈추지 않”(215)고, 이어지는 경호의 장례식 또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말이나 생전

17) 위의 책, 214-215면.

의 고인을 추모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219)은 채 Y건업의 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축하연과도 같은 것으로 진행된다. 아기의 탄생과 그 생명력을 기념하는 돌잔치는 ‘죽음’을 생성하는 것이 되고, 죽음을 추모하는 장례식은 ‘삶’을 축하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제의-향연의 분리 불가능성에 대한 연출이 집과 혈연가족이라는 친밀성의 영역에서 펼쳐진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가족과 같은 친밀한 공동체가 혈육의 죽음을 의미화하고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죽음 의례의 통념을 무화시킨다. 본래 가족, 공동체가 함께 수행하는 죽음 의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나누고 죽음의 파괴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고대의 죽음은 죽어가는 인물을 ‘연기’하는 ‘희극적인-비극’으로, 가족, 공동체에 둘러싸여 그것을 모범적인 죽음의 형태로 후세대에 전하는 수행이었다. 엘리야스(Elias)는 오늘날의 죽음이 병원에서 낫선 의료 전문가들과 수많은 연명 장치에 둘러싸여 ‘맨몸으로’ 직면하게 됨으로써 더욱 두렵고 금기시된 것이 되었다고 보았다.¹⁸⁾ 이러한 견해가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전도되는 것은 죽음이 ‘가족(자본)’이라는 계급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생성되어 온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서 고찰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경호는 죽음 앞에 홀로 맞서 그것을 직시할 권리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경호의 주체성을 박탈한 이들이 혈연가족이라는 점으로 말미암아 ‘박완서식 죽음정치’의 기원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¹⁹⁾

18) 안도 야스노리, 『사생학과 생명윤리: ‘좋은 죽음’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시마노조 스스무, 다케우치 세이치 편저, 정효운 역, 『사생학이란 무엇인가』, 한울, 2010, 62-63면.

19) 상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생존 욕망을 동시에 작동, 강화시키는 힘은 반공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권현익은 반공정치하 ‘이질적 존재’의 자리를 부여받는 대상, 즉 규율과 처벌의 대상은 홀로 존재하는 개인의 몸이 아니라 촘촘한 관계망이었다고 말한다. 처벌이 관계 자체와 관계 속의 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의자의 몸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권현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164-165면.) 이러한 반공정치의 메

박완서 소설에서 이러한 문체의식이 엿보이는 것은 경호의 죽음을 가족들이 ‘나눠 먹는’ 행위에 대한 묘사에 있다.

이래마다 한 번씩 상식을 지내고 그때마다 시집 식구들이 뭉땅 모여서 잔칫집처럼 웅성대며 아침을 해결하는 것도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다.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백항아리에 든 것을 내오라 해서, 자아, 한 고뿌씩 먹고 기운 내자, 하면서 아들들한테도 권하고 자기도 먹었다. 그거 먹자마자 피 토하고 죽은 남편 생각이 나서 만지기도 싫어 못 버리고 있던 걸,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냐고 번번이 값을 따져가며 나눠 마시고 번드르르한 입가를 닦는 걸 보면 게을 것 같아서 같은 식탁에 앉기가 싫었다. 시아버지가 에미는? 하고 찾으려면 시어머니가 영감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놔둬요. 나중에 따로 먹겠죠.²⁰⁾

송희장 일가는 경호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백항아리의 영양을 나눠 먹으면서 그의 죽음을 몸 안에 들이는 의미화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죽음을 할당받은 존재이자 가족(자본)을 위협하는 대상을 제거/승화하는 것으로, 『아주 오래된 농담』이 박완서의 죽음 인식을 집약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다. 이처럼 산 자들이 죽은 자를 몸에 들이는 행위는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신체 사유에 친착해온 박완서의 소설사적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박완서의 소설은 탈냉전 시기로 접어든 1990년대 이후에 오히려 전쟁 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종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한국전쟁이라는 “문학정신의 뼈대”²¹⁾를 보다 직접적으로 발화하고 기록하고자

키니즘은 ‘나쁜 죽음’ 자체가 관계적인 것이자,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의식적 과정이 공동체 내부에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제외-향연의 죽음 관리 체계는 박완서의 죽음정치의 기원으로서의 전쟁과 반공이데올로기를 암시한다.

20) 『아주 오래된 농담』, 233면.

21)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김병익, 호원숙 외 3인,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지식하

하는 의지와 소명의 증거로 1990년대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1992),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와 같은 자전적 소설이 연이어 발표된 것이다. 박완서는 전쟁을 기점으로 한 ‘모진 세월’을 망각해가는 현실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창작 동기를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²²⁾ 이러한 자전적 글쓰기는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 『그 남자네 집』까지 이어진다. 박완서의 후기작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단편소설의 흐름에서도 물론 나타난다. 당대의 현실 속에서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주체의 존재 양태를 적나라하게 들추어내는 글쓰기를 구사해온 작가로서, 1990년대, 2000년대에는 노년 여성의 소외나 욕망, 삶과 죽음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심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소설세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빨갱이 바이러스」와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2010)를 통해 전쟁과 상실이라는 작가의 원체험을 노년의 위치에서 문학적으로 다시금 갈무리하게 된다. 등단작 『나목』에서부터 고스란히 연결되는 이러한 후기작에 대한 평가는 박완서가 탈냉전의 국면에서 맞닥뜨리는 기억, 기록의 문제, 복원(불)가능성의 현실인식과 더불어, 세대가 분화되는 당대적 현실 속에서 다시금 되새기는 기억의 정치성에 대한 것이라고 다수의 연구자들이 논한 바 있다.²³⁾

『아주 오래된 농담』이 한국전쟁과의 관련성 속에서 논의된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품 경향과 비평의 흐름을 토대로, 이 소설은 ‘죽음’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전쟁 없이도 전쟁을 계승하고 있는 소설로 재독할 만하다. 박완서가 그리는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신체는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경험적 산물로 접근 가능한데, 특히

우스, 2011, 31면.

22) 박완서, 「작가 서문」,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사, 1995.

23)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김윤정, 「시대적 공통 감각의 문학과 '다시'의 박완서」, 『이화어문논집』 42, 이화어문학회, 2017;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지배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위협’-‘제거’의 공존 체제와 ‘먹어 치우는’ 기술은 박완서가 천착해온 ‘반동분자’의 몸에 대한 역사적 강박관념이라는 기원을 갖기 때문이다.

박완서에게 반동으로서의 죽음, 욕된 죽음은 산 자들로 하여금 “마치 새끼를 낳고는 텃덩이를 집어삼키고 구정물까지 씹씹 빨아먹는 짐승처럼 앙큼하고 태연하게”, “한 죽음을 꼴깍 삼”²⁴⁾키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그러한 죽음에서 놓여날 수 없는, 죽음 ‘곁에 있음(besideness)’으로서의 삶이다. 박완서의 초기작에 보이는 이러한 주술적 행위가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변주된 까닭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존재, 그러므로 해석할 수 없는 존재에 ‘죽음’을 할당하고 오직 죽음으로써만 의미화될 수 있게 하여 남은 자들의 ‘반동-아님’의 삶을 공고히 하는 한국(인), 가족, 공동체의 집단무의식을 또 한 번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 그려지는 ‘오빠’의 죽음은 『아주 오래된 농담』의 경호의 죽음과 유사하다. 오빠와 경호 모두 집에 갇혀 주체성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점,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 8개월 동안 서서히 사라져간 것”²⁵⁾처럼 경호 또한 같은 8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젖은 장작 타듯이 지루하게 죽어”(227)갔다는 점, 양쪽 모두 주술과도 같은 말들을 남긴 것, 그리고 복중(伏中)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박완서의 자전적 소설에서, 오빠의 시신을 묻은 뒤 허기가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쉴 것이 염려되어 팔죽을 먹어 치우는 가족들의 행위와,²⁶⁾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송회장 일가가 백향아리의 영약을 의지적으로 나눠 먹는 것은, 이들 모두의 몸이 ‘죽음’이 깃든 ‘삶(생

24) 박완서,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19, 106면.

25) 박완서,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박완서소설전집20), 세계사, 2018, 188면.

26) 위의 책, 191면.

존)’이라는 복합구조를 체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여기서 더 나아가, ‘피’가 ‘돈’으로 물상화되는 단계로 이행한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박완서가 죽음을 중심으로 한국전쟁기와 2000년대 간의 연속과 단절을 가시화하는 중심에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여성의 몸이 놓인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여성의 삶과 죽음이 동기화되어 있는 독특한 양상과 주체화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박완서의 죽음 의식이 그 자신의 소설사적 맥락에서 또한 갱신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4.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여성의 몸과 ‘농담’의 구조

박완서는 『아주 오래된 농담』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면서, 이 소설은 ‘돈’에 대한 것이자 ‘돈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여성의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게 돼버린 것도 독자가 눈여겨봐주었으면 하는 바람²⁷⁾이 있다는 소회를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아주 오래된 농담』은 ‘시체가 ‘자본’이 되는 메커니즘의 기원인 한국전쟁이라는 작가 원체험을 되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의 침단을 가시화하는 존재로서의 여성, 가족의 역사적 삶을 다시금 밝히는 소설이라 할 것이다. 박완서는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한국(인)의 존재 양태를 직접적으로 체현한 여성의 몸과 그것들의 관계적 배치에 주목한다.

주지하다시피 몸은 고정된 실재가 아니며 젠더화된 수행을 통해 공적 담론과 사회적 관계를 체현한다. 이러한 몸의 유동성, ‘되기’는 매끄럽게 통합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주체를 해체하고 그 자리를 오직 의미의 실천으로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는, 지리적 존재로서의 몸으로 재구성한다. 이

27) 박완서, 「작가 후기」,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사, 2000.

러한 체현된 주체로서의 여성은 그대로 지배집단과 열등집단을 구성하는 ‘몸의 수치화’(Scaling Bodies) 메커니즘을 통해 타자화되어왔다. 몸을 통해 정의되고 사회적 가치를 부여받는, 몸에 잡혀있는 이들을 설명하는 영(Young)의 이 개념은 트실런(Tseelon)에 의해 여성 체현의 패러독스 목록으로 발전한다.²⁸⁾ 이 가운데 ‘죽음’ 패러독스는 여성이 토렘과 터부로 구성된다는 점을 환기하는데,²⁹⁾ 박완서는 이러한 역설을 드러내고 전유하는 방식으로, 죽음정치하 여성의 존재 양태를 집중 조명한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송희장 일가의 기행만큼이나 영묘와 ‘수경’, ‘현금’이라는 여성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한다. 먼저 영묘는 남편인 경호에게 할당된 ‘욕된 죽음’의 경제를 미리 살아온 인물이다. 공직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아버지가 그 충격의 여파로 죽고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던 중에 유복자로 태어난 영묘는 자신을 “적나라한 외설”(167)의 산물, “애물덩어리”(231)로 인식한다. 영묘의 큰오빠 ‘심영준’은 누명을 쓴 아버지가 행여 자살이라도 할까 전전긍긍했고 그 사이 벌어진 부모의 정사를 증명하는 영묘를 “재수나쁜 계집애”(129)로 치부했다. 영묘는 아버

28) 트실런에 의하면 여성들은 여성 체현을 결정하는 다섯 가지의 패러독스에 간혀 처벌받는다. 첫째는 정숙(modesty). 여성들은 정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유혹자로 구성된다. 둘째는 표리부동(duplicity). 여성들은 인공물로 구성되며 따라서 본질을 결여한다는 이유로 주변화된다. 셋째는 가시성. 여성은 문화적으로 비가시적이지만 엄청난 볼거리로 구성된다. 넷째는 아름다움. 여성은 아름다움을 대표하고 추함을 체현한다. 마지막 죽음. 여성은 죽음을 막는 방어물이자 죽음을 의미한다.(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97-98면.)

29) 권명아는 가족, 여성을 현대인의 ‘토렘’과 ‘터부’로 설명한다. 프로이트는 전쟁에서 자신이 살해한 적의 육체를 나눠 먹는 행위에 대해, 그 대상을 신성화시켜 자신이 배제한 것에 대한 공포를 승화시키려는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분석했다. 인간 문명의 시원으로서의 토렘과 터부는 이러한 배제와 신성화의 메커니즘을 공통적으로 지니며, 가족과 여성 또한 배제와 신성화 사이에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체현한다.(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18면.) 경호의 탈상 때 백항아리 영약을 나눠마시는 이들은 모두 남성들이고 ‘피·돈’의 대립이라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후계 구조를 가시화한다. 배제한 것을 신성화하는 이들 남성들이 피·돈을 나눌 때, 여성은 죽음/삶, 피/돈 사이를 오가며 그러한 시스템을 체현하면서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주체성의 실마리를 갖는다.

지가 남긴 궁핍과 불명예, 수치와 죽음의 상징인 것이다.

경호의 죽음 뒤 영묘 모(母)는 “그년이 유복자로 태어날 때 벌써 팔자가 드세려는지 알아보긴 했지만 그렇게 일찍 남편을 잡아먹을 줄은 몰랐다”(230)면서, 사위보다 딸이 죽는 게 낫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영묘는 이러한 가부장제의 현실에 분노하고 송회장 일가를 벗어나기 위한 의지를 키워나가면서도 구체적 행동은 유보한 채 매우 망설이는데, 이는 영묘라는 인물이 보이는 한계라기보다 그가 ‘죽음’·‘삶(생존)’, ‘피’·‘돈’의 연동이 체화된 존재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묘의 탄생과 삶은 죽음에, 돈의 문제에 불박여있다. 수치스러운 죽음의 증거인 영묘는 ‘돈’과 ‘혈통’이 동일시되는 가족질서의 체화이기에 그들을 분리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궁극적 힘을 얻지 못한다. 영묘에게 죽음은 과거의 것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있으면서도 없는’ 상태로 존재하면서 현실을 지배한다. 이는 소설의 결말부에 강력히 등장하는 영준 또는 ‘가족’의 실체를 설명해주는 기제이기도 하다.

송회장 일가로부터 영묘를 떼어내 미국에 데려가게 되는 큰오빠 영준은 영빈, 영묘 남매에게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였다. 아버지의 욕된 죽음과 어머니의 집착에 환멸을 느끼고 일찌감치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대성한 그는 “한 번도 가족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적이 없”(314)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육친애가 아닌 악착같이 ‘돈’을 벌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 기표로서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에 가깝다. 영묘와 영준의 갑작스런 결합은 ‘가족’이, 있으면서도 없는 현재진행형의 죽음에서 출발해 그것을 은폐한 채 ‘돈과 혈통의 동일시’라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명령을 수행하는 단위임을 나타낸다. 영묘가 처한 이러한 역설은 이 소설이 여성 현실의 출발점을 ‘죽음’에 두면서도 그것을 ‘농담’처럼 은폐할 수 있게 하는 돈, 가족, 가부장제의 위력을 전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케 한다. 영묘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죽음과 삶이 상호 연동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여성은 수경과 현금이라는 또 다른 여성들에게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경호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들고 그것을 나눠 먹는 가족(자본)적 삶이, 지배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을 할당하고 그것을 관리, 처리하는 죽음정치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죽음 ‘겉에 있음’으로서의 삶,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신체는 여성 인물들이 보이는 젠더화된 수행으로 나타난다. 수경과 현금에게서 드러나는 수태/낙태와 관련된 이야기는 가부장제하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여성들의 독특한 주체성을 포착한다.

“수경이가 아들 낳기 위해 딸을 두 번이나 지운 거 너 모르지? ... 나도 하는 데까지는 했어. 그 짓 안 하게 하려고. 당연히 남편이나 시집에서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냐고 물었지. 차라리 구박이라도 했으면 오기로라도 있는 딸이나 잘 기를 생각하지, 그런 짓 안 할거라는 거야. 구박은 커녕 이 세상에 아들 딸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사는 남편도 싫고, 다만 그것 때문에 시집 식구한테 기를 못 띄고 짝 쥐여 사는 것도 너무나 굴욕적이어서 하는 데까지 해볼 결심을 했다고 하더군.”³⁰⁾

소설에서 영빈의 아내 수경은 교사로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두 딸의 교육에 대한 투자, 관리를 전담하면서, 함께 사는 시모와 가사·돌봄 분업을 통해 표면적인 분쟁을 줄이려 노력하는 양처로 그려진다. 영빈은 우연히 만난 첫사랑 현금과 외도를 하게 되는데, 현금이 홀로 임신 준비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수경과 알게 되어 그녀가 영빈 몰래 두 딸을 낙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현금에 의하면 수경은 아들생산을 바라는 시모의 무언의 압력과 그것을 방치하는 남편 영빈에 의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굴욕을 느껴왔고 ‘하는 데까지 해볼’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30) 『아주 오래된 농담』, 286-287면.

수경이 선택한 낙태는 경호의 죽음 과정에서 드러난 죽음정치의 특성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질적이다. 송희장 일가가 산 자에게 죽음을 할당하고 그것을 삼키는, 제의-향연의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족(자본)의 위협을 제거/승화했다면, 자본주의적 가부장 체제에서 여성이 자기 내부에 죽음을 할당, 이식하는 낙태 행위는 자신의 삶을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직접 (재)구성하는 주체화의 형식이다. 수경과 달리 결혼생활 내내 철저한 피임으로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는 현금은 영빈과의 외도를 통해 몰래 아이를 갖고자 했지만 수경의 낙태 사실을 알고 수태의 욕망을 거두게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은 이들 여성에게 체현된 ‘죽음’이라는 ‘농담의 구조’를 잘 보여준다.

“그런 수경이를 보면서 난 무지 헛갈렸어. 그 부도덕한 짓을 보면서 처음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도덕적인 눈으로 보게 됐으니 신기하잖아. 생전 처음 느껴보는 느낌이었어. 처음 결혼을 돈 때문에 한 것 말고는 끌리는 남자하고 자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거든. 돈도 나를 움직일 수 없고 도덕적인 비난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난 그게 내가 도달한 최고의 경지,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구. 그 착한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는 건 옳지 못한 짓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³¹⁾

현금과 수경의 이야기는 ‘수태’와 ‘낙태’라는 수행적 몸들의 관계적 배치를 통해 제도와 도덕의 통념을 해체하고 전도한다. 결혼한 남자와의 성적 관계에서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현금은 결혼제도 안에 있는 수경의 낙태 이야기를 듣고 도리어 그녀를 ‘착한 여자’로 인식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여성의 몸이 죽음을 전유한 생존이라는 주체화의 형식과 관련된다는 점을 포착하게 하는 부분이다. 영묘가 ‘돈과 혈통의 동일시’라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비틀지 못하

31) 위의 책, 288면.

고, 죽음을 체현하고 살아가는 여성의 존재론을 은폐하는 것으로서의 ‘농담’을 비판적으로 의미화하는 인물이라면, 수태와 낙태의 관계 속에서 마주치는 수경과 현금이라는 두 여성은 이러한 ‘농담’을 새로운 주체성의 징후로 삼으면서 ‘농담’이 가진 진실과 냉소의 힘을 강하게 드러내는 위치에 있다.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여성의 몸은 죽음과 삶이 상호 의존해 작동하는 역설을 감각하면서, 그것을 은폐하고 전도하는 ‘농담’의 구조를 주체화의 문제로 심화시키는 단위가 되는 것이다.

수경의 연이은 낙태와 아들 임신은 영빈의 집안에 새로운 질서를 삽입한다. 그것은 ‘모른 척’하는 ‘농담’의 규칙이다. 수경은 마치 배 속의 아기가 아들인 것을 모르는 것처럼 굴면서, “이번에도 또 딸이면 당신이 얼마나 실망할까”(303)라고 안절부절못하거나, 영빈의 손을 태동하는 배에 이끌리는 “노는 게 꼭 딸인 것 같다고 근심 어린 어리광”(303)을 비춘다. 이에 영빈은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딸이라도 하나도 안 섭섭해하고 공주처럼 떠받들겠노라고 맹서”(303)한다.³²⁾ 이러한 ‘모른 척’, ‘농담’의 구조는 소설의 중심인물로 배치되어 있는 남성 인물인 영빈의 위치를 풍자하는 데로 나아간다. 영빈은 매제인 경호가 죽음을 앞둔 사실을 비밀에 부쳐달라고 압박하는 송회장과의 대화에서 멀미를 느끼고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

내 몸은 무언가? 이 세상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나의 것이기도 하고 내가 일생 받들어 모신 나의 주인이기도 하다. 내 몸을 가지고 비록 자식이라도 나를 속여먹으려 든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태어

32) 이러한 모른 척, ‘못 본 척’의 심리는 전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동시대 여성, 가족의 현실을 설명하는 알레고리이기도 하다. 이선미는 박완서의 소설을 ‘못 본 척’이라는 스탠스로 해석한 바 있다. 탈냉전의 시대에 더욱 교묘해지는 이 ‘못 본 척’의 심리는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자본주의의 경쟁구조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데, 『아주 오래된 농담』은 이러한 분단의 심성구조를 보여주는 소설로 평가된다.(이선미,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 분단/냉전 문화와 마음의 흔적」,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1, 274면.)

난 것도 죽는 것도 선택은 아니지만 어떻게 죽느냐 정도는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 영빈도 좋은 선택을 하고 싶었다.³³⁾

영빈은 경호가 살아있는 시체로 취급받으면서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에서 배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에 교착된 의료 현실에 위화감을 느낀다. 이 때문에 소설에서 의사인 영빈은 일면 산 자에게 죽음을 할당하고 그러한 죽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죽음정치 가족의 진면목을 밝히는 인물로 인식되기도 한다. 영빈은 암을 결핵으로, 아들을 딸로, 죽음을 삶으로 여기는 이들 가운데 있으면서, 이러한 ‘모른 척’을 까발리는 인물은 아니나 ‘있으면서도 없는’, ‘농담’같은 죽음삶의 메커니즘을 폭로하는 해부학적 시선을 견지한 인물로서의 특징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³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된 농담』이 이러한 영빈의 위치마저 냉소하고 그를 도리어 최종적인 농담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 있다.

33) 『아주 오래된 농담』, 143면.

34) 영빈의 이러한 복합적인 위치성은 소설 후반부에 등장하는 ‘치킨 박’에 의해 두드러진다. 양념치킨집을 경영하면서 착실하게 살아온 중년 남성인 치킨 박은 영빈에게서 초기 폐암을 진단받는데, 당사자보다 먼저 사실을 알게 된 치킨 박의 아내는 남편이 암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고 영빈에게 신신당부한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게 된 치킨 박은 갑자기 행방불명되고 곧이어 자살한 채로 발견된다. 치킨 박이 남긴 유서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걱정에 죽음을 택하게 된 사연이 적혀 있었다. 치킨 박은 송경호와 같은 선암을 진단받았고 그의 순박함은 영빈으로 하여금 가족과도 같은 친밀감을 느끼게 했으며 치킨 박의 아내는 영빈에게 내심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수술로 충분히 완치될 수 있었던 치킨 박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과, 치킨 박의 아내가 그에게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차마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가부장’의 죽음을 보다 적나라한 계급적 현실 위에서 극단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오자은은 이러한 치킨 박의 죽음을 소외되거나 훼손되기 쉬운 가부장적 지수성가성의 표현으로 분석하는 한편, 송희장 일가와 같은 가족(자본)의 비윤리적 문제에 분노하면서도 명확한 행동은 유보하는 영빈을, 도덕적 위치성과 부의 정당성이 착종되어 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지닌 독특한 입지의 맥락에서 설명한 바 있다.(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02-105면, 183-187면.)

“그래 농담이지.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들어서 즐거운 거, 그거 농담 아니니? 의사라고 농담하지 말란 법 있나? 특히 너처럼 딱 막힌 애는 농담 좀 할 줄 알아야 돼.”³⁵⁾

소설에서 영빈은 현금과의 외도를 통해 가부장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충족하는 한편, 애뜻한 동생인 영묘가 실존적 위기에 처해있을 때 도 아내 수경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집에 파문이 일까 두려워 영묘에 대한 실질적 조력은 회피하는 비겁한 인물이다. “안의 잡음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도 싫지만 밖으로부터 균형이 위협받는 것도 싫”(108)은 것이 그의 가족론이다. 그는 ‘가족’이라는 “허구 덩어리”(303)를 붙들고는 그것을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모순적인 인물인 것이다.

영빈이 현금을 찾아가, 환자가 죽음 앞에서 기만당하는 현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가족질서에 대한 환멸을 이야기하자 현금은 그것이 거짓이 아닌 ‘농담’이라고 일축한다. 그리고 영빈에게 그러한 ‘농담’을 중용하면서 그를 ‘딱 막힌 애’라고 부르는 장면은, 이 소설에서 농담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대목이다. 자본주의적 가부장제하 ‘죽음’-‘삶’(생존), ‘피’-‘돈’의 연동 속에서 여성은 있으면서도 없는 ‘죽음’을 냉소하면서 그것을 전유한다. 농담이 통사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오히려 진실을 들추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³⁶⁾ 영빈이 가진 허위적인 윤리의식이야말로 최종적인 ‘농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이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혹독한 진실이며, 이로써 『아주 오래된 농담』은 죽음정치하 젠더화된 몸의 수행을 통해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주체성을 생산하는 여성, 가족의 존재론을 통렬히 읽어내는 역작이 된다.

35) 위의 책, 151면.

36) 우찬제, 『농담의 진실과 진담의 허위: 박완서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화사, 『문학과사회』 14-1, 문학과지성사, 2001 봄호, 260면.

5. 나가며: ‘살아있음’이라는 당위에 대한 문제제기

이 글은 박완서의 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개인 및 공동체의 삶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양상을 살피고, 그것이 전쟁을 겪은 한국(인)의 경험적 산물로서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고자 했다. 박완서 소설에서 죽음정치는 산 자에게 죽음을 할당하고 그것을 처리, 관리하는 체계이자, 이러한 죽음정치하의 존재들을 살필 수 있게 하는 관점이다. 죽음과 삶이 분리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양상과 그것을 가시화하는 조건으로서의 ‘살아있는 시체’는 경호의 몸뿐만 아니라 경호의 죽음을 몸 안에 들이는 송희장 일가를 함께 묘사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삶의 신체적 동기화는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여성 인물들의 주체성과 관련해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아주 오래된 농담』은 전쟁이 자본주의 체제로 그 모습만 바꾼 채 일상화되는 역사적 이행 속에서 죽음이 여전히 주체의 삶을 구조화하는 지점임을 재차 표시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출발해 끊임없이 ‘욕된 죽음’을 생산해내는 냉전질서와 그것이 비틀린 산업화 시대를 통과하면서, 박완서의 소설은 죽음이 체현된 신체를 성차화된 공간 경험으로 기술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일구었다. 그에게 죽음은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숙고할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 인간 삶의 조건을 반성적으로 재구성하게 하는 추상적이고도 탈젠더화된 인식론적 산물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의 소설이 죽음에 대한 재현(불)가능성을 미학적으로 타진해보려는 것도 아니다. 죽음-삶의 신체적 동기화의 양상과 그것이 주체 구성의 조건을 재구성하는 역학을 다루는 것이 박완서 소설의 죽음에 대한 사유라 할 수 있다. 박완서가 ‘죽음으로 구성되는 삶’이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주체성 모델을 역사적으로 제안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의 소설이 ‘살아있음’이라는 당위에 문제제기하는 형태를 띠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완서는 신체에 각인된 국가폭력과 그 트라우마적 경험의 연속체로서

존재하는 한국(인)의 존재 양태를 재현하면서, ‘살아있다’는 감각은 죽음에 적응하거나 죽음에 중독되는 것이지, 단순히 비극적/낙관적인 것으로 극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러한 죽음-삶 연속체로서의 한국(인)이라는 사회적 신체를 형상화해온 박완서는 후기작 『아주 오래된 농담』을 통해 전쟁 없이도 전쟁을 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죽음 인식을 갱신하였다.

오늘날 전지구적 생명-죽음 관리체제의 가동 속에서 몸(들)은 항구적인 감금상태를 새로운 삶의 조건으로 삼고, ‘죽음’이라는 터부와 그 절대적 타자성을 할당할 몸들을 계속해서 생성, 분화해낸다. 이러한 죽음-삶의 정치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더욱 배타적인 것으로 정교화하는데, 박완서의 『아주 오래된 농담』에서 포착되는 죽음은 이러한 동시대적 맥락에 닿아 있는 채로 역사적 기원을 소급해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죽음이라는 감산적 경험이 몸의 물질성으로 등록된 이상 누구와도 그것을 온전히 나눌 수 없다는, 박완서의 죽음에 대한 사유의 또 다른 일면은 『나목』과 「부처님 근처」 등에서 전쟁을 함께 겪은 모녀가 직면해 있는 갈등의 원천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처럼 죽음을 안은 젠더화된 몸들의 배치와 관계망은 박완서의 소설이 담지하는 핵심적인 정치성이자, 이러한 몸들이 결코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운동중, 변용중인 생성적 의지를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죽음’은 앞으로도 박완서의 소설을 보다 세밀하게 읽어나갈 수 있게 하는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아주 오래된 농담』은 ‘죽음과 동기화된 삶’이라는 박완서 죽음 인식의 수많은 반복 가운데 특히 급진적인 변주이면서, ‘살아있음’의 당위에 문제제기하고 그것을 재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역설적으로 죽음, 시체를 전면화하는 농담같은 소설이다. 이러한 박완서의 죽음 인식은 오늘날 한국(인)의 주체화 및 신체 사유를 둘러싼 내러티브를 확장하게 하는 독보적인 문학성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박완서소설전집21), 세계사, 2018.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박완서소설전집20), 세계사, 2018.
_____, 「부처님 근처」,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박완서단편소설전집1), 문학동네, 2019.

2. 단행본

-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권현익, 정소영 역, 『전쟁과 가족』, 창비, 2020.
안도 야스노리, 「사생학과 생명윤리: ‘좋은 죽음’을 둘러싼 담론을 중심으로」, 시마노 조 스스무, 다케우치 세이치 편저, 정효운 역, 『사생학이란 무엇인가』, 한울, 2010.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토마스 램케, 심성보 역,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그린비, 2015.

3. 논문

- 김미영, 「박완서 소설의 애도 불가능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98, 한국언어문학회, 2016. 135-160.
김미현, 「번역 그리고 반역」, 박완서, 『아주 오래된 농담』(박완서소설전집21), 세계사, 2018, 328-344.
김분선, 「생명관리정치에서 죽음관리정치로: 존엄사의 현행법에 대한 문제화」, 『철학 탐구』 57,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0, 163-199.
김윤정, 「시대적 공통 감각의 문학과화 ‘다시’의 박완서」, 『이화어문논집』 42, 이화어문학회, 2017, 197-210.
김혜경,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죽음’ 문제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19-1,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5, 37-48.
박성은, 「박완서 소설 속 ‘망령들’을 통해 본 분단서사의 틈과 균열」, 『용봉인문논총』 53,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95-120.
서정현, 「노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인식 연구: 김원일, 최일남, 박완서 작품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9-2,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593-603.

- 오자은,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중산층의 정체성 형상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 우찬제, 「농담의 진실과 진담의 허위: 박완서 장편소설, 『아주 오래된 농담』, 실천문학사」, 『문학과사회』 14-1, 문학과지성사, 2001 봄호, 257-260.
- 우현주, 「박완서 전쟁 체험 소설의 반복과 차이」, 『여성문학연구』 4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184-224.
- _____, 「상생과 불협화음의 경계에 선 말년성(lateness): 박완서의 「빨갱이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159-185.
- 유인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근접성 없는 공동체와 친밀성의 테크놀로지: 『아주 오래된 농담』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80, 민족어문학회, 2020, 169-194.
- 이선미, 「세계화와 탈냉전에 대응하는 소설의 형식: 기억으로 발언하기-1990년대 박완서 자전소설의 의미 연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403-432.
- _____, 「한 길 사람 속을 파헤치는 소설: 분단/냉전 문화와 마음의 흔적」, 『실천문학』, 실천문학사, 2011, 264-281.
- 이수형,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애도와 죄의식에 관한 연구」, 『여성문학연구』 25,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83-110.
- 이혜령, 「박완서의 1980년대: 빨갱이, 운동권, 사회주의(자)의 절합」, 『국제어문』 79, 국제어문학회, 2018, 357-384.
- 차미령, 「한국 전쟁과 신원 증명 장치의 기원: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주권의 문제」, 『구보학보』 18, 구보학회, 2018, 449-480.
- 최선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자본주의 양상과 극복의 가능성」, 『현대소설연구』 51,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431-455.
- A. Mbembé & Libby Meintjes, "Necropolitics", *Public Culture* 15/1, Duke University Press, 2003, pp.11-40.
- 로베르트 에스포트토, 김상운 역, 「생명정치와 철학」, 『문화과학』 104, 문화과학사, 2020, 291-310.

<Abstract>

The Aspects and Meaning of Necro-politics in Park
Wan-seo's Novel
– Focusing on 『A Very Old Joke』

Kwon, Young-bin

This paper sets a viewpoint of Necro-politics in order to re-read her later work A Very Old Joke. It can be said that her novels use death to deal with the aspect of the physical synchronization with life and death and the political dynamics that continuously reconstructs the two states.

Park's novels and writings resulted from an endless impulse to interpret the slaughter she experienced as a non-national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shameful death of her close relatives. Passing through the Cold War order that constantly produced 'dishonorable death' and the industrial era with the twined order, Park's novels cultivate a worldview that describes the body, in which death is embodied, as a gender-differentiated spatial experience.

This paper aims to examine such aspects in the context of her 'novel history,' and by doing so, argue that her novels tear down the strictly partitioned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and show a form of subjectivity that is reconstructed into an affective system of death.

Key words: Park Wan-suh, A Very Old Joke, Necropolitics, gender, body, abortion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3일